

의회, 50년 만에 UFO 청문회



▲ 스콧 브레이 미 해군정보국 부국장이 UAP 추정 물체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socialpost.news

미국 의회에서 50년 만에 미확인 비행물체(UFO) 관련 공개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미확인 비행현상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400건가량 관측됐다는 보고가 나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방하원 정보위 산하의 대테러·방첩소위원회는 전날 청문회를 열고 미확인 비행현상(UAP)과 관련한 진상 규명 조사 과정을 들었다. UAP는 미군이 UFO 대신 사용하는 용어다. 이 자리에는 로널드 폴트리 국방부 차관과 스콧 브레이 해군정보국 부국장이 출석했다.

청문회에서 브레이 부국장은 UAP 사례가 400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가 지난해 6월 제출한 UAP 관련 보고서에는 2004년부터 17년간 군용기에서 관측된 144건 중 143건이 UAP로 분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보고했을 때보다 257건이 늘어난 셈이다.

브레이 부국장은 "우리는 UAP가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왔을 것이라는 어떠한 물질적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폴트리 차관은 "UAP는 안보 일반과 비행 안전에 있어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그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가 미확인 비행체나 비행 현상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것은 1970년 미국 공군이 UFO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블루북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뒤 처음이다. 당시 공군은 UFO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을뿐더러 외계인이 만든 물체라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 공군 "극초음속 무기 시험 성공적 수행"

미 공군이 극초음속 무기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공군은 전날 낸 성명에서 지난 14일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안에서 전략폭격기 B-52H가 AGM-183A 공중발사 신속대응 무기(ARRW)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미 공군은 "항공기에서 분리된 ARRW의 부스터 모터가 점화되고 예상됐던 시간 동안 작동하면서 음속의 5배가 넘는 극초음속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 AGM-183A 공중발사 신속대응 무기(ARRW). 사진=airfoomag.com

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세계 최초로 실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작년 7월 자국의 극초음속 무기가 지구를 한바퀴 돌아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미국에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경쟁국보다 뒤처졌다는 우려가 커졌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성공하고도 지금껏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며 기동 회피가 가능해 추적과 파괴가 어려운 무기 체계로 평가된다. 미국이 실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최초의 극초음속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ARRW는 전략폭격기인 B-52H에서 발사되며 부스터 모터가 일정 속도까지 가속하면 이후 활공체와 분리된 탄두가 극초음속으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탄두의 속도가 음속의 20배까지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군사 경쟁을 벌이는 러시아와 중국은 이

"인도계 연 12만 달러 벌 때 한국계 7만 달러"

아시아계 미국인은 출신 국가에 따라 소득과 학력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연합뉴스'가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의 이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2019년 연간 중위 소득은 8만5천800달러로 미국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인 6만1천800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교육 수준도 아시아계는 25세 이상 인구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보유자가 54%인 것으로 파악돼 같은 나이의 전체 미국인 비율이 33%에 비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출신 국가별로 세분화하면 편차가 컸다. 인도계의 중위소득은 11만9천 달러로 미국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했던 반면 미얀마계의 중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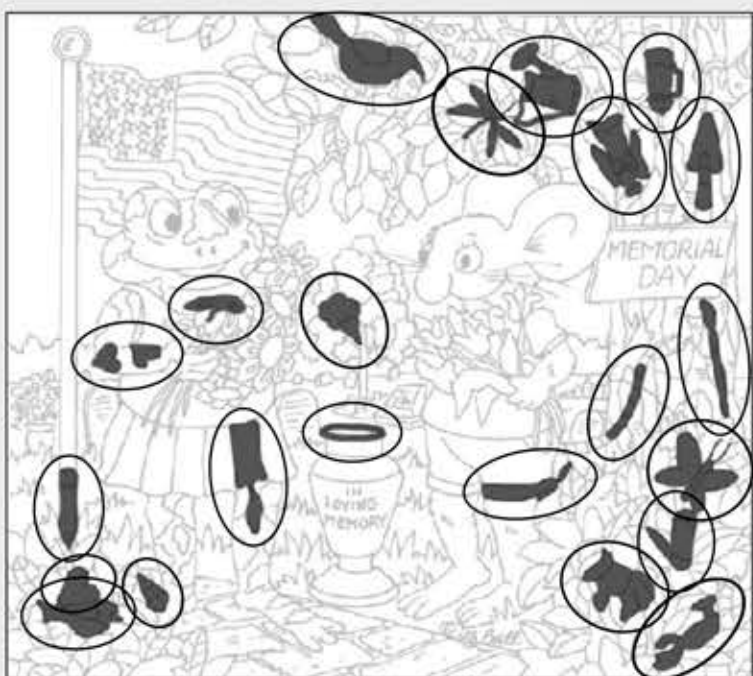
은 4만4천400달러로 미국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한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인도와 미얀마의 중간쯤인 7만2천200달러였다.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도 출신 국가에 따라 출발점이 다르다고 퓨리서치센터는 밝혔다. 예를 들어 첨단기업의 고소득 일자리를 보장받고 미국으로 온 인도인 이민자와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친 미얀마 망명인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계 미국인 인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배로 늘어 현재는 2천200만 명에 달한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인종 그룹인 아시아계는 2060년에는 그 규모가 4천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퓨리서치센터는 내다봤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날말퍼즐 정답

	1대	장	2간		3발	대	4중
5친	서		6발	7꿈	치		복
손				결		8책	
9자	10작		11노		12인	가	
	13대	명	천	지		14방	15석
	기		극				빙
16평		17자	장	18면		19파	고
20일	단	락		21도	요	지	